







승격이 너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처럼 상행은 반 좋은 쪽으로만 가질 것이다.  
 나는 두려웠다. 내가 이 세상 존재가 사라져 버리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아  
 무것도 없었다. 너의 존재는 허무했다.









# 백(百)의 그림자 ONE HUNDRED SHADOWS

백(百)의 그림자 ONE HUNDRED SHADOWS

백(百)의 그림자 ONE HUNDRED SHADOWS

백(百)의 그림자 ONE HUNDRED SHADOWS

기획 이현경, 이재화  
참여작가 권세진, 박예나, 임노식, 장서영

오프닝리셉션 7. 17(화) 18:00  
관람시간 12:00 - 19:00 (월요일 휴관)

전시장소  
성북예술가압장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3길 10 1층  
공간가변크기 서울시 성북구 성선로로2길 11

후원 서울문화재단  
협력 성북문화재단, 공간가변크기

2018. 7. 17-7. 29